Korean J Relig Educ 종교교육학연구
Vol. 86, pp. 21-41, September 2026 pISSN 1229-6627
https://doi.org/10.58601/kjre.2026.09.30.02 eISSN 2672-1767

Semantic Appropriation of Religious Vocabulary in Online News Discourse and Its Implications for Religious Education

Taeeun Shim[1], Jioh Kim[2*]
[1]Hankyong National University, [2]Dongguk University-Seoul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how religious vocabulary in online news discourse is used in association with specific religious semantic networks. It also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these patterns of language use for religious literacy and media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Contents] This study analyzed online news articles classified under "Society > Religion" in Big Kinds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5. The analysis covered 15 religious terms organized into four categories: religious subjects, religious practices, spaces and institutions, and core values. Using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the study examined word frequencies and semantic networks among terms. It then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four representative terms: "person of faith," "prayer," "holy site," and "compassion."

[Conclusions] The findings showed that religious terms were not used evenly across the full range of their dictionary meanings but were selectively associated with the actors, practices, institutions, and values of particular religions. "Person of faith" and "prayer" were used mainly in relation to Christian actors and practices, while "holy sit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Catholic pilgrimage, institutions, and historical memory. This pattern can be understood as semantic appropriation, in which terms applicable to different religions come to function as representative language for a particular religion. By contrast, the network of "compassion" included prominent associations with Buddhist terms, alongside Christian terms and words concerning social rel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ligious education should expand to include media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that critically examines how religion is represented in public discourse and how the media selectively make particular religions more visible.

[Keywords] online news discourse, religious terms,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literacy, media religious literacy

*** Corresponding author** Jioh Kim (Assistant Professor, 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Seoul)
E-mail : mugunamu@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온라인 뉴스 담론에 나타난 종교 어휘의 의미론적 전유와 종교교육적 함의

심태은[1], 김지오[2]

[1]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조교수, [2]동국대학교-서울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종교 어휘가 실제로는 어떤 종교의 의미와 결합하여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언어 사용이 종교 문해력과 미디어 종교문해력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빅카인즈(Big Kinds)에 수록된 '사회>종교' 분야 온라인 뉴스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종교 주체, 종교 실천, 공간 및 제도, 핵심 가치의 네 범주로 구성한 15개 종교 어휘이며,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출현 빈도와 어휘 간 관계망을 분석하고, 대표 어휘인 '신앙인', '기도', '성지', '자비'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분석 결과 종교 어휘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 고르게 사용되기보다 특정 종교의 주체, 실천, 제도 및 가치와 선택적으로 결합하였다. '신앙인'과 '기도'는 주로 그리스도교의 주체와 실천을, '성지'는 가톨릭의 순례와 제도, 역사적 기억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는 여러 종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특정 종교의 대표 언어처럼 쓰이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비'에서는 불교 관련어와의 주요 결합과 함께 그리스도교 관련어 및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와의 결합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교육이 공적 담론의 종교 재현과 미디어의 선택적 가시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미디어 종교문해력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온라인 뉴스 담론, 종교 어휘, 종교교육, 종교 문해력, 미디어 종교문해력

Received August 04, 2026 / **Revised** September 09, 2026 / **Accepted** September 09, 2026

Ⅰ. 서론[1)]

현대 한국 사회는 다양한 신앙 체계와 종교 전통이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이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역사와 교리, 의례를 지닌 종교들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지층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는 사실이 공적 담론에서도 각 종교가 동등하게 재현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온라인 뉴스에서는 여러 종교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어휘가 실제로는 특정 종교의 인물과 의례, 제도 및 가치를 주로 가리키는 말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차이는 단순한 출현 빈도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종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한 종교와 반복적으로 결합하면, 그 종교의 언어와 실천은 종교 일반을 대표하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 다른 종교의 언어와 실천은 종교명이나 별도의 설명을 덧붙여야 이해되는 특수한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공적 담론은 특정 종교를 직접 높이거나 다른 종교를 노골적으로 비하하지 않더라도, 어떤 종교의 언어는 설명 없이 사용하고 다른 종교의 언어에는 별도의 표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종교 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교육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의 교리와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에 한정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종교의 역사와 실천을 이해하고, 각 종교 내부에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며, 사회와 미디어가 종교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비판적으로 읽는 교육까지 포함한다. Moore(2007)는 종교 문해력을 종교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교와 사회·정치·문화의 관계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도 윤재근, 나권수(2024)는 특정 종교의 신앙 전수에 치우친 교육을 넘어 종교적 중립성을 갖춘 보편적 교양교육과 종교 문해력 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Youn & Na, 2024).[2)]

종교 문해력은 미디어에 재현된 종교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Hjarvard(2008)는 미디어가 종교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에 머무르지 않고, 미디어의 논리와 재현 관행에 따라 종교의 공적 의미와 사회적 가시성을 다시 구성한다고 보았다. Jackson(2014) 역시 종교와 비종교적 세계관에 관한 상호문화적 교육의 주요 과제로 학습자가 미디어의 종교 재현

1) 이 논문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종교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2026. 7. 7)에서 발표한 '온라인 뉴스 담론에 나타난 종교 어휘의 의미론적 전유와 헤게모니 분석'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다루는 교육적 과제는 익숙한 종교 어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어휘가 종교를 재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다. 가령 학습자가 '기도'나 '자비'의 일상적 뜻을 알고 있더라도, 그 말이 뉴스에서 어느 종교의 인물·실천·공간·가치와 반복적으로 결합하는지, 같은 표현이 종교별로 어떠한 의미 차이를 지니는지까지 파악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적 적용 범위와 뉴스의 사용 맥락을 비교하고, 종교별 의미와 언어적 가시성의 차이를 근거에 따라 설명하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제시하였다. 권순희(2022)도 미디어에 나타난 종교 이미지가 한국 사회의 종교 인식과 관련된다는 점을 검토한 바 있다(Kwon, 2022).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뉴스는 사회 구성원이, 종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종교인은 무엇을 실천하며 어떤 장소와 가치가 종교와 관련되는지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무형식적 학습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한 종교의 모습이 종교 일반의 모습처럼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면, 사람들은 그 종교의 특징을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뉴스의 종교 언어를 분석하는 일은 종교교육이 비판적으로 다루어야 할 언어 환경을 밝히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할 때에는 두 종류의 언어 사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특정 종교를 직접 낮추거나 조롱하는 멸칭처럼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이다. 다른 하나는 표현 자체에는 비하의 뜻이 없지만, 특정 종교와 반복적으로 결합하면서 그 종교를 종교 일반의 대표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유형에 대해 이정복(2016)은 화자가 차별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거나 표현의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주변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Lee, 2016). 조태린(2011) 역시 발화자와 수신자 모두가 표현의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잠재적 갈등을 지속시키는 경우를 '은폐형'으로 설명하였다(Cho, 2011). 이는 차별의 문제를 판단할 때 단어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나 발화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같은 방식의 언어 사용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종교에 적용될 수 있는 어휘가 실제 뉴스에서는 특정 종교 관련어와 반복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기도'가 '교회', '목사', '하나님', '예배'와 주로 함께 나타난다면, 해당 자료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실천 맥락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교 어휘의 의미론적 전유(專有)'는 이처럼 공유 가능한 어휘의 담론적 사용이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가리킨다. 이를 검토할 때에는 단일 어휘의 빈도 차이에 한정하지 않고, 주체・실천・공간 등 복수 범주에서 특정 종교 관련어와의 결합이 반복적으로 두드러지는지 살핀다. 이는 어휘에 대한 특정 종교의 소유권이나 의도적 배제를 뜻하지 않으며, 독자가 해당 종교를 실제로 먼저 연상하는지를 입증한 개념도 아니다.

한편 동일한 종교 어휘가 서로 다른 종교적・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될 때 그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재맥락화'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동시출현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것은 특정 시점의 어휘 결합 관계이다. 따라서 '자비'의 관계망에 여러 종교 관련어가 함께 나타난다는 결과와 개별 기사에서 기존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다른 종교의 표현을 가져와 사용한다는 해석은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 종교 맥락과의 결합을 우선 기술하고, 역사적 차용의 시기와 방향 및 개별 용례의 재맥락화 여부는 현 자료로 확정하지 않는다.

물론 어느 한 어휘가 특정 종교와 자주 결합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미론적 전유나 차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종교별 사회적 규모와 활동의 차이,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의 빈

3) 종교 어휘의 공유와 분화에는 경전 번역과 종교 간 접촉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도, 매체의 보도 관행과 분석 시기의 사회적 쟁점도 어휘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두 어휘의 빈도 차이보다 사람, 종교 행위, 종교 공간과 가치에 관한 여러 어휘에서 같은 방향의 결합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복이 확인된다면, 특정 종교는 종교 일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더 자주 드러나고 다른 종교는 상대적으로 덜 보이는 언어적 비대칭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어사전의 차별 표현 기술을 검토한 이정복(2017)과 종교 어휘의 편향성을 분석한 김지오(2025)에서 선행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정복(2017)은 국어사전의 표제어 선정과 뜻풀이, 용례에 나타난 차별 표현의 기술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사전이 언어 현실을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저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 표현에 대한 사회적 판단과 인식에 관여하는 공적 언어 자원임을 보여주었다(Lee, 2017). 김지오(2025)는 ‘신도’, ‘예배’, ‘은혜’처럼 복수의 종교에 적용될 수 있는 어휘가 사전의 뜻풀이와 예문에서는 그리스도교적 맥락과 우세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밝히고, 이러한 기술이 특정 종교의 언어를 무표적인 표준으로 승인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Kim, 2025).

그러나 사전에 제시된 용례와 실제 뉴스에서 반복되는 용례는 성격이 다르다. 사전은 제한된 뜻풀이와 예문을 제시하지만, 뉴스는 현실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종교 어휘를 계속 새롭게 사용한다. 따라서 사전에서 발견된 종교 어휘의 비대칭이 뉴스에서도 반복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의 대규모 자료를 분석하면 특정 종교 어휘가 어떤 사람과 행위, 장소와 사건에 반복적으로 연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종교를 평가하거나 종교 간 우열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적 뉴스에서 어떤 종교의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차별 표현 연구는 직접적인 비하어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차별과 사전의 표현 방식까지 연구 범위를 넓혀 왔다. 미디어와 종교에 관한 연구도 언론이 종교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교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러 종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실제 뉴스에서 어느 종교와 주로 결합하는지, 특정 종교에서 나온 말이 다른 종교나 사회윤리의 언어로 어떻게 쓰임을 넓히는지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이러한 언어 사용이 종교 문해력과 미디어 종교문해력 교육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다룬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어사전에서 발견된 종교 어휘의 불균형이 온라인 뉴스에서도 나타나는지

역사적 경로와 특정 시점의 뉴스에서 확인되는 사용 양상은 서로 관련되지만 분석의 층위가 다르다. 본 연구는 2025년 뉴스에 나타난 결합 양상을 분석하는 공시적 연구로서, 개별 어휘의 발생과 전파 경로를 복원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또한 번역을 통해 공유된 표현이라도 종교별 교리적 의미와 현재의 사용 맥락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번역사적 설명과 종교 문해력의 교육적 과제는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를 살펴보고, 종교 어휘가 어떤 말들과 함께 사용되면서 특정한 종교적 의미를 형성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범종교적 어휘의 의미론적 전유와 종교 기원 어휘의 재맥락화가 종교문해력 및 미디어 종교문해력 교육에 어떠한 과제를 제기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스 언어가 학습자의 종교 인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보다, 사회 구성원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적 종교 언어의 특징과 그것이 종교교육에 제기하는 문제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온라인 뉴스에서 종교 관련 일반 어휘는 어떤 말들과 함께 사용되며, 그 결합은 어떠한 종교적 관계망을 형성하는가? 특정 종교와의 결합 집중 및 복수 종교 맥락과의 결합은 각각 어떻게 나타나며, 이를 의미론적 전유와 재맥락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둘째, 온라인 뉴스에서 나타나는 종교 어휘의 비대칭적 사용은 종교 문해력과 미디어 종교문해력 교육에 어떠한 과제를 제기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종교 어휘의 의미망 분석과 대표 사례 중심 해석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담론에 나타난 종교 어휘의 의미 구조와 재현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Song, Ko, & Jang et al., 2024). 텍스트마이닝은 대규모 텍스트 자료에서 특정 어휘의 출현 양상과 연관 어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사회연결망 분석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구조를 시각화하고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단어의 단순 출현 빈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종교 어휘가 온라인 뉴스에서 어떤 어휘들과 함께 등장하며, 이러한 결합을 통해 어떠한 종교적 의미망을 구성하는지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를 종교에 관한 사회적 이미지와 의미가 형성되는 공적 담론이자 무형식적 학습 환경으로 본다. 따라서 뉴스에 나타난 종교 어휘의 의미망 분석은 공적 담론에서 종교가 선택적으로 재현되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 결과가 종교 문해력과 미디어 종교문해력 교육에 제기하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본 연구의 핵심 설계는 국어사전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통어로 정의된 어휘들이 실제 뉴스 담론에서는 어느 종교의 맥락과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결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겉으로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말처럼 보이는 종교 어휘들이 온라인 뉴스에서 특정 종교의 의미로 수렴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특정 종교에 기원을 둔 어휘가 본래

의 의미를 유지하거나 다른 종교 및 사회적 담론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재맥락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 어휘는 선행연구에서 공공성과 범용성이 검토된 종교 관련 어휘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종교적 삶을 이루는 주요 차원을 고려하여 종교 주체, 종교 실천, 공간 및 제도, 핵심 가치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종교 주체 범주에는 '신도', '신자', '신앙인', '성직자', 종교 실천 범주에는 '기도', '예배', '수행', '순교', 공간 및 제도 범주에는 '성지', '교구', '교리', '종교', 핵심 가치 범주에는 '은혜', '창조', '자비'를 포함하여 총 15개 어휘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15개 어휘는 개별 단어의 사용 빈도를 단순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주체 · 실천 · 공간과 제도 · 가치가 온라인 뉴스 담론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폭넓게 검토하기 위한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15개 어휘 전체의 출현 및 관계망을 분석하되, 각 범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례 1개씩을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해석하였다. 사례 선정에서는 해당 범주의 의미적 특성이 드러나는지, 특정 종교 관련어와의 결합 집중 또는 복수 종교 관련어와의 결합이 관찰되는지, 사전적 적용 범위와 실제 사용 맥락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교 문해력 교육의 분석 과제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종교 주체 범주에서는 '신앙인', 종교 실천 범주에서는 '기도', 공간 및 제도 범주에서는 '성지', 핵심 가치 범주에서는 '자비'를 대표 어휘로 선정하고, 온라인 뉴스 담론에서 종교 어휘가 특정 종교의 의미와 결합하고 비대칭적으로 재현되거나 새로운 맥락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종교교육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2. 자료 수집: 온라인 뉴스 담론 자료의 구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의 시의성과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해당 기간에 생산된 온라인 뉴스 가운데 종교 관련 담론을 포함하는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최근 한국 사회의 공적 담론장에서 종교 어휘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언론사의 성향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하고 공적 담론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대상은 전국 단위 일간지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등 주요 12개 종합매체를 포함하였다. 자료 검색 시에는 빅카인즈의 통합 분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 > 종교'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분석 대상 어휘가 종교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본 연구는 특정 종교명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사회 > 종교' 카테고리

안에서 분석 대상 어휘가 출현한 뉴스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는 특정 종교의 명칭이나 서사를 사전에 배제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온라인 뉴스 담론 안에서 각 어휘가 어떤 종교적 맥락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3. 분석 대상 어휘의 구성과 자료 정제

분석 대상 어휘는 김지오(2025)의 국어사전 분석에서 공공성과 범용성이 검토된 종교 어휘를 기초로 하고, 종교적 삶을 구성하는 주체, 실천, 공간 및 제도, 핵심 가치의 차원을 고려하여 관련 어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대상과 범주별 구성, 대표 사례의 선정 기준은 앞서 제시한 연구 설계에 따랐다.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음이의어나 비종교적 의미로 사용된 일부 용례에 대해서는 자료 정제 작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신도’에서는 지명인 ‘신도림’과 기업명인 ‘신도리코’가 포함된 사례를 제외하였으며, ‘은혜’는 인명이나 상호명으로 사용된 사례를 배제하였다. ‘수행’은 ‘과제 수행’, ‘업무 수행’, ‘작전 수행’과 같이 행정·업무·군사적 의미로 사용된 사례를 제외하고, 종교적 수련이나 실천의 의미가 유지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제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분석 대상 어휘와 관련성이 낮은 비종교적 용례가 의미망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4. 자료 분석 절차

수집된 뉴스 텍스트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TEXTOM을 활용하여 정제하고 분석하였다(Lee, 2022). 분석은 자료 전처리와 핵심어 추출, 어휘 간 관계 분석, 대표 사례에 대한 종교교육적 해석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산출된 출현 빈도, 동시출현 빈도, 상관계수 및 연결망 구조는 분석 대상 어휘가 어떠한 종교적 의미망 속에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해석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본문에서는 네 개의 대표 어휘를 중심으로 주요 공출현어와 상관어의 수치를 제시하되, 서로 다른 중심 어휘 간의 절대빈도를 직접 비교하기보다 각 중심 어휘 내부에서 나타난 상대적 관계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형태소 분석을 통해 뉴스 기사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분절하고, 명사를 중심으로 핵심어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용어와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을 제거하여, 각 종교 어휘가 어떠한 주변 어휘와 함께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Nam & Moon, 2024). 이후 각 분석 대상 어휘별로 출현 빈도 상위 50개 어휘를 추출하고, 이를 후속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분석 대상 어휘와 주변 어휘의 결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동시출현 관계와 상관관계

를 분석하고, 중심 어휘별 에고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동시출현 관계는 특정 어휘들이 동일한 분석 단위 안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상관관계와 에고네트워크는 중심 어휘와 주변 어휘 사이의 상대적 관련성과 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위 50개 어휘를 바탕으로 단어-단어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중심 어휘와 주변 어휘의 출현 패턴을 토대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어 동일한 어휘 집합을 바탕으로 중심 어휘별 에고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주요 연결어와 의미축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 가능한 어휘가 특정 종교 관련어와 주로 결합하는 양상과 하나의 어휘가 복수 종교 관련어 및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들과 연결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셋째, 전체 분석 어휘의 의미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각 범주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앙인’, ‘기도’, ‘성지’, ‘자비’를 중심으로 심층 해석하였다. 대표 어휘별로 공출현 빈도, 상관계수 및 에고네트워크에서 확인된 관계 구조를 종합하여 해석하고, 그 결과가 종교 문해력, 다종교 이해 및 미디어 종교문해력 교육에 제기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 뉴스 담론에서 종교 어휘가 특정 종교의 의미망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양상과 종교 기원 어휘가 다른 종교 또는 사회적 맥락으로 재맥락화되는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종교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온라인 뉴스 담론에 나타난 종교 어휘의 비대칭적 재현

본 장에서는 15개 분석 어휘의 전반적인 의미망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뉴스 담론에서 종교 어휘가 특정 종교의 주체, 실천, 공간·제도 및 가치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는 어휘별 출현 빈도, 주요 동시출현어, 상관관계 및 에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네 범주의 특징을 대표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핵심 수치를 제시하고, 나머지 어휘의 분석 결과는 범주별 전반적 경향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문에서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네 범주의 의미망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 어휘 1개씩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종교 주체 범주에서는 ‘신앙인’, 종교 실천 범주에서는 ‘기도’, 공간 및 제도 범주에서는 ‘성지’, 핵심 가치 범주에서는 ‘자비’를 대표 사례로 분석하였다.

대표 사례 중심의 결과 제시는 각 범주에서 종교 어휘가 특정 종교의 의미망과 결합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특정화 및 재맥락화 양상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은 특정 종교를 평가하거나 종교 간 우열을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뉴스 담론에서 종교 어휘의 의미가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되고 가시화되는지를 종교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표 1>에서는 네 범주의 전체 분석 범위와 대표 어휘를 제시하고, 각 대표 어휘에서 확인된 주요 동시출현어와 빈도, 상위 상관어와 상관계수, 에고네트워크의 의미 구조 및 통합적 해석을 요약하였다. 이후에는 '신앙인', '기도', '성지', '자비'를 중심으로 각 범주의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네 대표 어휘는 사전적 의미 범위에 따라 고르게 사용되기보다 특정 종교의 주체, 실천, 공간·제도 및 가치와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의미망을 형성하였다. 표에 제시된 결과는 네 대표 어휘의 주요 수치와 의미 구조를 요약한 것이며, 나머지 어휘의 결과는 각 범주의 전반적 경향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어휘의 전체 경향과 대표 사례
<Table 1> Overall Trends and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Analyzed Vocabulary

범주	전체 분석 어휘	대표 사례	동시출현어	상관관계어	주요 의미축	통합해석
종교 주체	신도, 신자, 신앙인, 성직자	신앙인	교회(176), 신앙(144), 하나님(138), 기독교(112), 기도(96)	신앙(.1923), 평화(.1336), 가톨릭(.1323), 교황(.1285), 교인(.1256)	신앙 정체성, 종교 실천, 윤리적 가치, 사회적 관계	범종교적 주체어가 그리스도교적 신앙 주체와 삶의 서사를 중심으로 의미화
종교 실천	기도, 예배, 수행, 순교	기도	교회(2,607), 목사(2,122), 하나님(1,976), 예수(1,348), 예배(1,214)	하나님(.2416), 기도회(.2379), 믿음(.1344), 자녀(.1340), 통일(.1043)	공동체 의례, 신앙 내면, 정서적 위로, 사회적 실천	공유 가능한 실천어가 그리스도교의 의례와 신앙 경험을 중심으로 의미화
공간 및 제도	성지, 교구, 교리, 종교	성지	교회(79), 순례(77), 성당(65), 문화(62), 종교(61)	국제(.5034), 성당(.3748), 신부(.3554), 순례(.3037), 천주교(.2395)	국제 순례, 가톨릭 제도와 의례, 역사적 기억, 타 종교 공간	범종교적 공간어가 가톨릭의 순례·제도·역사적 기억을 중심으로 특정화
핵심 가치	은혜, 창조, 자비	자비	마음(291), 불교(240), 사회(240), 스님(220), 교회(198)	부처(.3444), 가르침(.2119), 지혜(.1240), 실천(.1165), 천주교(.1082)	불교적 가르침, 사회적 관계, 그리스도교 관련 맥락	불교 관련어와의 주요 결합을 유지하며 그리스도교 관련어도 함께 나타남

동시출현 빈도는 대표 어휘가 주로 어떤 어휘와 함께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며, 상관계수는 중심어와 주변어의 상대적 관련성을 나타낸다. 에고네트워크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하는 주요 의미축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세 분석 결과는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범종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휘가 실제 뉴스 담론에서 특정 종교의 의미망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양상과 특정 종교에 기원을 둔 어휘가 보편 윤리 또는 타 종교의 담론 속에서 재해석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1. 종교 주체 어휘의 재현: '신앙인'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국어사전인『우리말샘』은 '신앙인(信仰人)'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풀이한다. '신앙인'은 특정 종교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전문 명칭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종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명사'이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에서 '신앙인'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 범위와 달리 그리스도교 관련 어휘와 집중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시출현 분석에서 '신앙인'은 교회 176회, 신앙 144회, 하나님 138회, 기독교 112회, 기도 96회와 함께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신앙(r=.1923), 평화(r=.1336), 가톨릭(r=.1323), 교황(r=.1285), 교인(r=.1256)이 상위 관련어로 확인되었으며, 이야기(r=.1223), 갈등(r=.1010), 목회(r=.0990) 등도 주요 관계망에 포함되었다.

개신교 관련어와 가톨릭 관련어가 함께 의미망의 중심에 놓였다는 점에서, 온라인 뉴스의 '신앙인'은 종교를 가진 사람 일반보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닌 사람을 우선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반면 불자, 수행자 등 불교의 신앙 주체를 나타내는 어휘는 상위 공출현어와 상관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4] 이는 일반 명사인 '신앙인'의 실제 사용 범위가 뉴스 담론에서는 그리스도교 중심으로 특정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야기', '갈등', '인생', '친구' 등의 연결은 '신앙인'이 단순히 종교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기사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스는 신앙인을 삶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을 신앙을 통해 이해하고 대응하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삶의 서사 역시 교회, 하나님, 가톨릭, 교황, 목회 등의 어휘와 함께 구성된다는 점에서, 뉴스가 제시하는 신앙인의 구체적인 모습은 주로 그리스도교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신앙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종교 주체 범주에 포함된 다른 어휘를 함께 분석한 결과, '신자'는 가톨릭, 천주교, 교황, 성당, 신부 등과 주요 관계망을 형성하였으며, '성

4) 원불교(r=.0412)가 검출된 사례를 제외하면, 불교적 수행 주체를 뜻하는 핵심 도상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등장하지 않았다.

직자’도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교황청 등 가톨릭의 제도와 인물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신도’는 불교와 스님 등 타 종교 관련어도 함께 나타나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사용 양상을 보였지만, 상위 관계망에는 예배, 교황, 가톨릭, 목사 등 그리스도교 관련어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의 예외적 사례라기보다, 종교인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주체어가 온라인 뉴스에서 그리스도교 중심으로 그려지는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어휘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신앙인’은 사전에서는 모든 종교의 신앙 주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명사이지만, 온라인 뉴스에서는 그리스도교 관련어와 반복적으로 결합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을 대표하는 말처럼 기능하고 있었다. 이는 여러 종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특정 종교의 언어로 특정화되는 의미론적 전유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 종교 실천 어휘의 재현: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말샘』은 ‘기도(祈禱)’를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빎. 또는 그런 의식.”으로 풀이하고, 이를 ‘일반 명사’로 분류한다. 이 정의에는 특정한 신이나 종교, 의례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도’는 사전적으로 어느 한 종교에 속한 말이 아니라, 여러 종교의 신앙 행위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명사이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에서 ‘기도’는 이러한 사전적 의미 범위와 달리 그리스도교 관련 어휘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시출현 분석에서 ‘기도’는 교회 2,607회, 목사 2,122회, 하나님 1,976회, 예수 1,348회, 예배 1,214회와 함께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하나님(r=.2416), 기도회(r=.2379), 믿음(r=.1344), 자녀(r=.1340), 통일(r=.1043)이 상위 관련어로 확인되었으며, 은혜(r=.0977)와 소망(r=.0939) 등도 주요 관계망에 포함되었다.

반면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기도 행위나 신앙 실천을 나타내는 어휘는 상위 공출현어와 상관어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내지 않았다.[5] 이는 여러 종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명사인 ‘기도’가 실제 뉴스에서는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신앙 실천을 나타내는 말로 특정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기도’와 연결된 어휘들은 뉴스가 그리스도교의 기도를 어떠한 행위로 재현하는지도 보여준다. 먼저 하나님, 기도회, 예배, 목사와의 결합은 기도가 개인이 홀로 행하는 신앙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례로 보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도회가 두 번째로 높은 상관값을 보이고 예배가 상위 공출현어에 포함된 결과는, 뉴스에서 기도가 조직화된 공동체의 행사와 의례를 설명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뒷

5) 불교 및 기타 종교 관련 단어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하한선 아래에 위치해, 기도는 기독교적 패러다임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모습을 보인다.

받침한다.

믿음과 은혜가 상위 관계망에 포함된 결과는 기도가 신앙인의 내면적 태도와 종교적 확신을 표현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뉴스에서 기도는 단순히 소망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고 신앙의 의미를 확인하는 그리스도교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통일이 상위 상관어로 확인된 것은 기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의 소망을 표현하는 공적 행위로도 보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도' 외의 종교 실천 범주의 다른 어휘를 함께 검토한 결과, '예배'는 교회, 목사, 하나님, 복음, 찬양, 설교 등 그리스도교 관련어를 중심으로 의미망을 형성하였고, '순교'도 교회, 천주교, 교황, 가톨릭, 미사 등 그리스도교의 신앙 기억과 기념 의례를 나타내는 어휘들과 주로 연결되었다. 반면 '수행'은 불교, 스님, 조계종, 명상 등과 결합하여 불교적 실천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그리스도교 관련어와 관계를 형성하였다.[6] 이는 범종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도', '예배', '순교'가 그리스도교 중심으로 특정화되는 한편, 불교 기원어인 '수행'은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다른 종교 담론과도 연결되는 상이한 의미 이동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기도'는 사전에서는 특정 종교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 명사이지만, 온라인 뉴스에서는 교회, 목사, 하나님, 예수, 예배 등과 반복적으로 결합하면서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의례와 신앙 경험을 대표하는 말처럼 기능하고 있었다. 이는 여러 종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특정 종교의 언어로 특정화되는 의미론적 전유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 공간 및 제도 어휘의 재현: '성지'를 중심으로

『우리말샘』은 '성지(聖地)'를 "종교적인 유적이 있는 곳"이라는 종교 일반의 뜻과 "특정 종교에서 신성시하는 장소"라는 뜻 두 가지로 제시한다. 후자의 전문 분야 표시는 '기독교'로 되어 있지만, 뜻풀이에서는 기독교의 예루살렘과 이슬람교의 메카를 함께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전문 분야 표시는 특정 종교와 연결되어 있으나, 뜻풀이와 용례의 범위에서는 여러 종교의 신성한 장소를 가리킬 수 있는 어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에서 '성지'는 이러한 의미 범위와 달리 가톨릭 관련어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시출현 분석에서 '성지'는 교회 79회, 순례 77회, 성당 65회, 문화 62회, 종교 61회, 평화 58회, 불교 49회와 함께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국제(r=.5034), 성당(r=.3748), 신부(r=.3554), 순례(r=.3037), 천주교(r=.2395), 조선(r=.2106), 바티칸(r=.1430)이 상

6) '수행'은 불교, 스님, 조계종, 법, 명상 등과 강하게 결합하여 불교적 실천어의 성격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교황, 교회, 목사 등 그리스도교 관련어와도 강하게 연결되었다. 이는 그리스도교 중심으로 특정화된 '기도', '예배', '순교'의 핵심 의미망에서 불교 관련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불교에 기원을 둔 '수행'의 의미망에는 그리스도교 관련어가 진입해 있다는 점에서 결합 방향의 비대칭이 확인된다.

위 관련어로 확인되었다.

특히 바티칸, 로마, 순례와의 결합은 뉴스에서 성지가 가톨릭의 국제적 순례망과 연결된 장소로 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당, 신부, 천주교와의 연결 역시 성지가 가톨릭의 제도와 의례, 역사적 기억이 결합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국제'가 가장 높은 상관값을 보인 것은 '성지'가 국내의 특정 종교 공간에 한정되기보다 해외 순례지, 바티칸, 로마 등 국제적 종교 공간과 연결되어 보도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 문화, 평화 등의 어휘는 성지가 종교적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박해와 순교의 역사, 문화유산, 평화의 상징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뉴스에서 '성지'는 신성한 장소 일반보다 가톨릭의 순례와 역사적 기억을 담은 공간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불교도 주요 동시출현어에 포함되었으나, 상관관계 상위권에는 성당, 신부, 순례, 천주교, 바티칸 등 가톨릭 관련어가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러 종교의 공간을 가리킬 수 있는 '성지'가 실제 뉴스에서는 가톨릭의 순례・제도・역사적 기억을 중심으로 의미화되는 의미론적 전유가 확인된다.

공간 및 제도 범주의 다른 어휘에서도 유사한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교구'는 가톨릭, 미사, 교구장, 천주교 등과 주요 관계망을 형성하였고, 불교와 조계종도 일부 포함되어 두 종교의 제도적 맥락이 함께 나타났다. '교리'는 신천지, 목사, 교단, 신학 등과 연결되어 그리스도교계의 정통성 논쟁과 교단 경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종교' 역시 교회, 기독교, 목사, 하나님 등의 어휘가 주요 관계망에 포함되어, 포괄적 상위 개념에서도 그리스도교 사례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 및 제도 범주에서도 여러 종교에 적용될 수 있는 어휘가 가톨릭 또는 그리스도교의 제도・역사・공간을 중심으로 특정화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범주에서는 종교 기원어의 재맥락화보다는 범종교적 어휘가 특정 종교의 대표 언어처럼 기능하는 의미론적 전유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4. 핵심 가치 어휘의 재현: '자비'를 중심으로

『우리말샘』은 '자비(慈悲)'에 두 가지 뜻을 제시한다. 하나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는 일반 명사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함."이라는 불교 전문어의 뜻이다. 따라서 '자비'는 일반적인 사랑과 연민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인 동시에, 불교의 교리와 실천에 뿌리를 둔 핵심 가치어이기도 하다.[7)]

7) 따라서 이 사전 기술은 '자비'에 일반적 의미와 불교 전문 의미가 함께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만 뜻풀이의 구분만으로 각 의미의 역사적 선후 관계나 그리스도교 용법의 성립 경로를 확정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자비'의 불교적 의미를 중요한 분석 맥락으로 삼되, 그리스도교 관련 용례 전체를 최근에 발생

온라인 뉴스에서도 ‘자비’는 불교 관련어를 중심으로 의미망을 형성하였다. 동시출현 분석에서 ‘자비’는 마음 291회, 불교 240회, 사회 240회, 스님 220회, 교회 198회, 실천 187회, 조계종 162회, 평화 157회, 종교 146회, 부처 131회와 함께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부처(r=.3444), 가르침(r=.2119), 지혜(r=.1240), 실천(r=.1165)이 상위 관련어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비’가 여전히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윤리적 실천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뉴스 담론에서 ‘자비’의 의미 중심은 불교적 가르침과 수행 윤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자비’의 의미망은 불교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마음, 사회 등의 어휘와 연결되면서 개인의 태도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윤리적 가치어로 사용되었으며, 교회 198회, 예수 115회, 교황 110회, 하나님 98회, 목사 90회, 신자 82회, 천주교 79회 등 그리스도교 관련어도 주요 공출현어에 포함되었다. 상관관계에서도 천주교(r=.1082), 신자(r=.1019), 예수(r=.0829), 주교(r=.0823), 기도(r=.0639), 미사(r=.0534)가 일정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자비’가 불교적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교의 인물과 공동체, 가치와 실천을 다루는 담론 속에서 새로운 의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특정 종교에서 형성된 어휘가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다른 종교적·사회적 담론과 결합하는 ‘재맥락화’로 본다.

핵심 가치 범주의 다른 어휘와 비교하면 이러한 재맥락화의 방향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은혜’는 하나님, 구원, 고백, 믿음, 예수 등을 중심으로, ‘창조’는 과학, 진화, 성경, 환경, 존재 등을 중심으로 의미망을 형성하였다. 이들 어휘의 상위 관계망에서는 불교 관련어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반면, ‘자비’의 관계망에는 천주교, 신자, 예수, 주교 등 그리스도교 관련어가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불교 기원 실천어인 ‘수행’도 불교, 법, 스님, 명상 등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교회, 목사, 교황 등 일부 그리스도교 관련어와 함께 나타났다. 이는 종교 기원 어휘의 의미 확장이 종교 간에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비’의 사용을 단순한 의미 확장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자비가 사회윤리적 가치어로 사용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의미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 관련 담론과의 결합이 불교 기원어에서 상대적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비대칭적 재맥락화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자비’가 불교의 교리적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윤리와 타 종교의 가치·실천을 표현하는 언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종교 간 가치 공유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반복적인 재맥락화 과정에서 본래의 불교적 교리와 수행 맥락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종합하면, ‘자비’는 온라인 뉴스에서 불교의 핵심 가치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윤리적 담론과 그리스도교 관련 담론으로 재맥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범종교적 어휘가 특정 종교의 대표 언어처럼 기능하는 ‘신앙인’, ‘기도’, ‘성지’의 의미론적 전유와 구별된다. 전자가 공유 가능한 어휘의 사용 범위가 특정 종교 중심으로 특정화되는 현상이라면, ‘자비’의 경우에

한 불교 어휘의 차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는 불교 기원어가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사회윤리 및 타 종교 담론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담론에서 종교 관련 어휘가 어떠한 주변 어휘와 결합하고, 그 관계를 통해 어떠한 종교적 의미망으로 재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교 주체, 종교 실천, 공간 및 제도, 핵심 가치의 네 범주에 해당하는 15개 어휘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어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범주의 특성을 대표하는 ‘신앙인’, ‘기도’, ‘성지’, ‘자비’를 중심으로 동시출현 관계, 상관관계 및 에고네트워크의 의미 구조를 심층적으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뉴스에서 종교 어휘의 의미망은 사전적 의미 범위에 따라 종교 간에 고르게 형성되지 않았다. ‘신앙인’과 ‘기도’는 주로 그리스도교의 주체와 실천을 중심으로 의미화되었으며, ‘성지’는 가톨릭의 순례, 제도 및 역사적 기억과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이들 어휘는 사전적으로 여러 종교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실제 뉴스에서는 특정 종교의 인물, 의례 및 공간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처럼 기능하였다. 반면 ‘자비’는 불교의 교리와 윤리적 실천에 기반한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윤리 및 그리스도교 관련 담론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연구질문과 관련하여, 온라인 뉴스에서 종교 어휘의 의미가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범종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휘가 특정 종교의 의미망을 중심으로 특정화되는 의미론적 전유이다. ‘신앙인’과 ‘기도’는 그리스도교의 주체와 실천을, ‘성지’는 가톨릭의 순례와 역사적 공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면서 해당 종교의 경험을 종교 일반의 익숙한 모습으로 가시화하였다. 두 번째는 특정 종교에 기원을 둔 어휘가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다른 종교적·사회적 담론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재맥락화이다. ‘자비’는 불교적 가치어라는 의미적 중심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관계, 보편 윤리 및 그리스도교의 인물과 실천을 설명하는 언어로 사용 범위가 확장되었다.

의미론적 전유와 재맥락화는 의미 이동의 방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의미론적 전유가 공유 가능한 어휘의 사용 범위를 특정 종교 중심으로 좁히는 방식이라면, 재맥락화는 종교 기원 어휘의 사용 범위가 다른 종교와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두 현상은 모두 공적 뉴스 담론에서 종교 어휘가 종교 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특정 종교가 의도적으로 다른 종교의 언어를 점유하거나 배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되는 뉴스의 언어 선택을 통해 일부 종교의 인물과 실천, 공간이 종교 일반의 대표적 모습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일부 종교의 고유 어휘는 본래의 교리적 맥락을 넘어 다른 담론에서 폭넓게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동시출현 빈도와 상관계수는 어휘 간 관계의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특정 종교의 의도적인 언어 점유나 의미 변화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또한 중심어마다 수집된 기사 수와 전체 출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휘의 절대적인 공출현 빈도를 직접 비교하기보다, 각 중심어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어휘 관계와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분석 기간의 온라인 뉴스에서 종교 어휘가 어떠한 관계망을 통해 선택적으로 의미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담론적 경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연구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교육적 제안은 어휘의 사전적 적용 범위, 실제 뉴스의 결합 맥락, 종교별 의미 차이를 연결하여 읽는 데 있다. 종교에 관한 지식과 미디어의 종교 재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연결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를 종교 주체, 종교 실천, 공간 및 제도, 핵심 가치라는 네 범주의 어휘 분석으로 구체화한다. 학습자는 친숙한 표현의 뜻을 설명하는 데 더하여, 해당 표현이 누구의 경험을 어떤 맥락에서 가리키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가 적용될 수 있는 의미 범위와 선택한 기사에서 실제로 가리키는 종교적 대상을 구분한다. 둘째, 주변 어휘와 종교명·교파명의 명시 여부를 근거로 기사 속 종교적 맥락을 설명한다. 셋째, 동일한 어휘의 종교별 의미 차이를 비교하고, 필요한 맥락 정보를 보완하는 표현을 제안한다. 이때 빈도 차이나 종교명 생략을 곧바로 편향의 증거로 판단하기보다, 기사 전체에서 종교적 배경이 이미 제시되었는지, 사건과 취재원의 차이가 표현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종교별 비교 자료는 네 범주를 공통의 질문으로 삼아 구성한다. 주체 범주에서는 누가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실천 범주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행하는지, 공간 및 제도 범주에서는 어떤 장소와 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가치 범주에서는 해당 개념이 어떤 가르침과 실천을 설명하는지를 비교한다. 이러한 구성은 서로 다른 종교에 동일한 명칭이나 교리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종교의 경험을 종교 일반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동일한 어휘가 서로 다른 종교의 기사에서 쓰인 경우와 유사한 비교 주제가 종교별로 다른 표현을 통해 제시된 경우를 함께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기도’의 종교별 용례와 함께 예불·수행·명상 등을 살피되, 이들을 뜻과 기능이 같은 일대일 대응어로 제시하지 않는다. ‘자비’ 역시 각 종교의 신뢰할 수 있는 설명 자료와 실제 기사 문맥을 함께 제시하여, 동일한 표기가 동일한 교리적 의미를 보장하지 않음을 검토하도록 한다. 각 종교 내부의 교파·시대·실천 방식에 따른 차이도 자료 설명에 포함한다.

이러한 목표는 ‘의미 범위 확인 - 기사 맥락 분석 - 종교 간 비교 - 맥락 보완’의 절차로 구성할 수 있다. 교사는 날짜·매체·출처를 확인한 실제 기사와 종교별 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자

료의 양과 용어 해설 수준을 학습자의 배경에 맞추어 조정한다.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활동과 평가 기준이다.

<표 2> 종교 어휘 분석을 활용한 미디어 종교 문해력 교육 활동(안)
Proposed Media Religious Literacy Activities Based on Religious Vocabulary Analysis

절차	학습 활동	산출물・평가 기준
의미 범위 확인	사전과 종교별 설명 자료에서 적용 범위・의미를 확인한다.	자료 출처를 밝히고 적용 가능성과 실제 용례를 구분한다.
기사 맥락 분석	주변 어휘, 인물・기관・의례・장소, 종교명 명시 여부를 표시한다.	문장과 기사 전체의 근거를 들어 종교적 맥락을 설명한다.
종교 간 비교	같은 어휘의 다른 종교 용례 또는 공통 주제의 다른 표현을 비교한다.	공통점・차이점과 종교 내부의 다양성을 설명한다.
맥락 보완	뜻이 모호한 표현에 필요한 정보를 보완하고 이유를 쓴다.	사실을 보존하며 수정의 필요성 또는 원문 유지의 이유를 설명한다.

평가에서는 특정 종교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결론에 동의하는지보다, 텍스트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는지를 중시한다. 이미 종교적 맥락이 충분히 제시된 기사라면 원문을 유지하는 판단도 타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위 활동은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교육적 제안이며, 학습자의 인식 변화나 수업 효과를 검증한 모형은 아니다.

한편, 언론과 공적 담론 생산자에게도 종교 관련 어휘의 사용 맥락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을 ‘대칭적 명시화’의 원칙으로 제안한다. 대칭적 명시화는 모든 종교 표현 앞에 기계적으로 종교명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다. 독자가 해당 어휘를 종교 일반의 표현으로 오해하거나 특정 종교에만 속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종교적 귀속과 맥락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사 맥락에 따라 ‘가톨릭 신자’, ‘개신교 기도회’, ‘불교 성지’와 같이 종교적 배경을 명시하면, 특정 종교의 용법이 종교 일반의 기본값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자비’와 같은 종교 기원어를 다른 종교나 사회윤리의 맥락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그 개념의 본래 교리적 배경과 현재의 사용 맥락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사전의 정의와 분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종교 어휘의 의미 범위 문제를 실제 온라인 뉴스 담론의 사용 양상으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적으로 공유 가능한 종교 어휘가 공적 담론에서는 특정 종교의 의미망을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종교 어휘를 개별적인 출현 빈도에 한정하여 분석하지 않고, 주변 어휘와의 동시출현 관계, 상관관계 및 에고네트워크의 구조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종

교적 의미가 관계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을 제시하였다. 셋째, 범종교적 어휘가 특정 종교 중심으로 특정화되는 의미론적 전유와 종교 기원 어휘가 다른 담론으로 확장되는 재맥락화를 구분하였다. 넷째, 이러한 언어적 현상을 종교 문해력과 미디어 종교문해력의 문제로 연결함으로써, 온라인 뉴스 담론을 활용한 종교교육의 분석 관점과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 자료는 빅카인즈에 수록된 2025년 온라인 뉴스 가운데 '사회 > 종교' 분야와 전국 단위 일간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국내의 모든 온라인 종교 담론을 대표하기 어렵다. 지역 언론, 종교 전문 언론, 방송 기사 및 인터넷 기반 독립 매체를 포함할 경우 다른 의미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15개 종교 어휘의 전반적인 의미망을 분석하였으나 본문에서는 네 개의 대표 어휘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어휘의 의미 구조를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셋째, 동시출현 관계와 네트워크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개별 기사에서 어휘가 사용된 구체적인 문맥, 논조, 서사 구조 및 담론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넷째, 뉴스의 종교 어휘가 독자와 학습자의 종교 인식이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중심어별 기사 수와 전체 출현 규모가 상이하므로 어휘 간 절대적인 공출현 빈도를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중심어의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각 중심어 내부의 상대적 관계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먼저 15개 어휘 전체의 관계망을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하고, 종교별·매체별·시기별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어휘를 전문적 교리어와 복합 표현 등으로 확대하여, 어휘의 유형과 친숙도에 따라 종교별 결합 양상과 해석상의 어려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사 단위의 질적 담론 분석을 결합하여 동일한 어휘가 긍정적·부정적·중립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종교명이 언제 명시되거나 생략되는지,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종교적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역시 포털 댓글,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및 종교기관의 공식 미디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디지털 환경은 뉴스와 다른 방식으로 종교 어휘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별 의미망과 재현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학습자, 교사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종교 어휘의 의미 인식과 종교적 귀속 판단을 조사하여 뉴스의 언어적 재현이 실제 수용자의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뉴스 기사 비교, 어휘 관계망 분석, 종교적 맥락의 명시 여부 검토 등을 포함한 미디어 종교문해력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에서 종교 어휘의 의미가 사전적 정의만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어휘 관계와 담론적 사용을 통해 선택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종교 사회의 종교교육은 이러한 언어적 재현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특정 종교의 경험이 종교

일반의 표준으로 자연화되는 과정과 종교 기원 어휘가 새로운 맥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함께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공적 언어에서 종교가 어떻게 가시화되고 의미화되는지를 읽는 능력은 종교 간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종교 전통을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종교 문해력이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Cho, T. R. (2011).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s and social conflict. *Narasarang*, *141*, 388-410.

Hjarvard, S. (2008). The Mediatization of Religion: A Theory of the Media as Agents of Religious Change. *Northern Lights: Film & Media Studies Yearbook, 6*(1), 9-26.

Jackson, R. (2014). *Signposts: Policy and Practice for Teaching about Religions and Non-Religious World Views in Intercultural Educat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Kwon, S. H. (2022). Religious images of Koreans as seen through media. *Journal of Korea Human Image Design*, *4*(1), 17-37.

Moore, D. L. (2007). *Overcoming Relig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in Secondary Educ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Nam, K. B., & Moon, H. B. (2024). A study on selecting Japanese popular music suitable for high school Japanese education based on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6*(4), 1255-1274.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 d.). Sinangin [Person of faith]. In Urimalsaem. Retrieved 2026. 7. 26., from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12742&viewType=confirm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 d.). Gido [Prayer]. In Urimalsaem. Retrieved 2026. 7. 26., from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06231&viewType=confirm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 d.). Seongji [Holy site]. In Urimalsaem. Retrieved 2026. 7. 26., from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35657&viewType=confirm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 d.). Jabi [Compassion]. In Urimalsaem. Retrieved 2026. 7. 26., from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443071&viewType=confirm

Lee, J. B. (2016). Unintentional Use of Discriminatory Expressions by Netizen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4*(3), 345-377.

Lee, J. B. (2017).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scription of discriminatory expressions in Korean dictionaries. *Baedalmal, 61*, 199-245.

Lee, J. P. (2022). *The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Arirang since the 2000s through text mining and popular music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Youn J. K., & Na, K. S. (2024).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extbook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ns education, 78*, 63-78.

김지오 (2025). 국어사전을 통해 본 종교 언어의 헤게모니: 『우리말샘』의 불교·기독교 어휘 기술을 중심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연구보고서. (Translated in English) Kim, J. O. (2025). *The hegemony of religious language as seen through Korean dictionaries: Focusing on the description of Buddhist and Christian vocabulary in Urimalsaem*. Report submitted to the Religious Peace Committee of the Jogye Order.

송학준, 고민환, 장민희 (2024). 논문쓰기, 텍스트마이닝으로 한번에 끝내기 <TEXTOM 프로그램활용법>. 서울: 이친구들 세상. (Translated in English) Song, H. J., Ko, M. H., & Jang, M. H. (2024). *Completing research papers with text mining: A guide to using TEXTOM*. Seoul: Ichingudeul Sesang.